

“석유공사 해외자원개발 손 뺀다”
이데일리 기사 관련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려드립니다.

□ 보도내용

- 보도매체 : 이데일리(“16.3.14)
- 제목 : “석유공사 해외자원개발 손 뺀다”
- 기사 보도요약

- 한국석유공사가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익성 있는 해외광구를 정리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손 뺀 예정이며, 국민연금 등 국내기관 중에서 인수 및 투자처를 물색하여 이르면 상반기 중에 수조원대 매물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전망함. 또한 과거 인수한 하베스트, 다나유전의 경우 자산 전체를 매각할 수 있음.

□ 해당 기사는 사실이 아니기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
- “석유공사는 수익성 있는 해외자산을 팔아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사실상 정리하기로 결정함.” 내용과 관련,
 - 공사가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사실상 정리할 것으로 보도된 것은 사실이 아님.
 - 공사는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별적 구조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며, 매각 우선순위를 고려한 일부 자산매각을 통해 2018년까지 4천억을 마련할 계획임
 - ※ 3.4일 공사 경영정상화 추진 보도자료 기재포

- “국민연금 등 국내기관 중에서 인수 및 투자처를 물색하여 이르면 상반기에 수조원대 매물이 시장에 나올 전망” 내용과 관련,
 - 공사는 국내 기관 투자자를 통해 공사 자산에 대한 향후 투자의향에 대한 의사타진을 했을 뿐, 구체적인 내용은 논의된 바가 없음.

- “하베스트, 다나 유전의 경우 자산 전체를 팔 수 있다” 내용과 관련,
 - 공사는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별적 구조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며, 매각 우선순위를 고려한 일부 자산매각을 통해 2018년까지 4천억을 마련할 계획임

 - 따라서, 하베스트 및 다나 유전 등 자산전체 매각에 대해 결정한 바가 없음.